익산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창출 나선다

50세 이상 퇴직 인력 대상
독서지도 등 5개 서비스분야
100명 채용 연말까지 활동

지난 20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19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50세 이상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시가 추진하는 5개 세부사업 신중년 전문인력 100명을 채용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5060세대인 신중년을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신중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중년 전문인력을 파견할 세부사업 분야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5060 버스킹 공연단'과 '신중년 역사이야기 꾼','50 생활체육 교실','드림스타트 독서지도', '신중년 창업서포터즈' 등이다.

선발된 인력은 각종 축제·문화행사장과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교실, 창업보육센터 등에 파견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사)전북창업공유 지원센터는 예산 관리와 행정을 지원하고 일자리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교실, 창업보육센터 등은 신중년 퇴직자를 고용해 축제·행사 공연활동, 지역아동센터 문화해설교육, 독서·생활체육교실 지도, 창업관련 기술경험전수 등 서포터즈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의 야시장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에 출연할 예정인 '5060 버스킹 공연단'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중년의 전문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일자리사업으로 승화시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생활밀착형 지역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 강화, 노후설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가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무안사랑상품권' 7월 유통 준비 '끝'

무안군이 '무안사랑 상품권'을 오는 7월 중순부터 유통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업무를 대행하는 NH농협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들 금융기관은 상품권 전용 전산프로그램이 연계 구축돼 있다.

군에서 발행하는 '무안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군은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7월 중순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400여 개의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을 모집했다.

올해에는 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종류는 5000원권과 1만원권 2종이다.

평상시에는 3%, 명절 등 특별할인 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안군 관계자는 "처음 발행하는 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취급 가맹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등 총력

고창군이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만료 기간이 석달(9월 27일) 앞까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인허가 접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창지역 273개 축사 중 128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46.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읍면직원 및 축협 직원들이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농가의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역의 8개 건축사무소 건축사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신속설계 등 인허가 설계를 주문했다.

고창부안축협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사의 측량 설계비 등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내고장 알리미 '마을전도사' 떴다

정읍시, 해설사 25명 수료…방문객에 역사·문화 소개

"내 고장 알리미 마을전도사가 떴다."

정읍시는 최근 내 마을 내 고장을 알리는 '마을 해설사' 25명을 선발·교육하고 수료식을 가졌다.〈사진〉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은 마을체험을 위해 정읍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 특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읍시공동체활성화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우리 고장 알아보기와 농촌관광 우수마을 사례, 효과적인 해설기법, 레크레이션의 기술, 응급처치와 농촌관광 안전 교육, 마을 스토리텔링 교육 등 총 7회차 20시간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해설사는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태, 먹거리 등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알리고 소개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을 찾는 분들에게 마을해설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마을 전도사로서 우리 마을 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담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80%까지 지원

담양군이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담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에 총 경작면적이 7000㎡ 미만 영세고령 농업인의 경우 벼 품목에 대해 100%를 지원하고 유기인증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도 농작물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자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46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며, 기한은 벼는 28일, 콩은 7월19일, 수박, 딸기 등 시설 작물은 11월29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남원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고 등급 기관 선정

남원시가 감사원에서 주관한 '2019년(2018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의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심사결과는 A등급(15%)과 B등급(35%), C등급(40%), D등급(10%)으로 배분·구분해 발표됐다.

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 계획수립과 감사절차 준수,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상위 15% 이상에게 주어지는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사전예방적인 감사가 높이 평가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북도, 도내 서원·향교 현판·액자 분석 연구 착수

전북도는 도내에 산재한 서원, 향교, 제실 등의 현판과 액자 등을 분석해 도내 유학의 근원을 찾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려 말 성리학 전래 이후 저명한 유학자들이 서로 교류한 증거로 다수의 현판과 액자 등을 제작했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 1월까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811개 서원, 개인·문중 사우, 서당, 향교를 전수조사해 현판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목록화하는 용역을 맡겼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용역은 도내 향촌 사회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확보하고 전북 유학의 뿌리 등을 찾기 위한 종합 연구"라며 이를 근거로 유적 발굴, 정비,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